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1호 (2003 가을)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사색을 위한 인용 □

국화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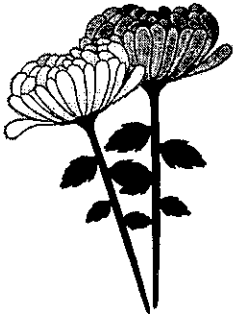
한 비 야

나도 한때는 남들보다 늦는 것이 조바심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는, 독자적인 삶을 꾸려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세계 여행 덕분이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파키스탄의 낭가파르바트, 네팔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오를 때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정상까지 오르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여도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체력 좋은 사람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같이 뛰면 꼭대기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반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속도로 가면 반도 못 가서 지치고 만다. 억울하지 않은가. 자기 속도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부단히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라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다면.



물론 사람에게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인생의 속도와 일정표가 있다.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고, 아이들 낳다 키우고,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한다는. 이것에 딱 맞추어서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해야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편하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시간표와 자기 것을 대조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곤 한다. 나는 벌써 늦은 것이 아닐까, 내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닐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 표준 시간표가 정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오히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시간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요즘 베이징에는 어디를 가나 탐스러운 국화가 한창이다. 제철을 만난 국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국화는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구나.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저렇게 아름답게 필 줄 아는구나.

가을에 피는 국화는 첫 봄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개나리를 시샘하지 않는다. 역시 봄에 피는 복숭아꽃이나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한여름 붉은 장미가 필 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꽃보다 늦게 피나 한탄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며 내공을 쌓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매미소리 그치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돌아온 지금, 국화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은은한 향기와 자태를 마음껏 뽐내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늦깎이라는 말은 없다. 아무도 국화를 보고 늦깎이 꽃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쳐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속도와 시간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내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철에 피는 꽃을 보라! 개나리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지 않는가.

—『중국전문록』(푸른숲 2001)에서

〈怡耕基金〉 모금

故 怡耕 趙要翰 博士 1주기에 즈음하여 고인의 장남 조경진 씨(서울시립대 교수)와 차남 조경덕 씨(서울대 교수)는 고인의 전공분야였던 서양고전철학과 예술철학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철학과에 기탁하였습니다. 이에 철학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이경기금>을 조성하여 고인과 유족의 뜻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고인의 유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461-124227-02-017

-예금주: 한석환

맞벌이의 한계



고 승 원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산율 저조로 인해 국가경제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니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출산율 저조는 사회일각에서 말하는 절없는 신혼부부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맞벌이를 오랫동안 해왔다. 그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과정이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저녁에 이천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일이 생겨 새벽에 서둘러 자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을 만큼 아이들과 얽힌 일들은 끝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도 곳곳이 맞벌이를 고수하던 우리도 결국은 몇 달 전에 맞벌이를 청산하고 말았다. 이제, 작은 아이가 7살이고 해서 육아 문제는 벗어난 상태이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아이들의 교육문제였다.

아이들의 육아문제는 우리들의 의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나, 교육문제는 우리들의 의지만이 아닌 주위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맞벌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나 부모와 부모관계 등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고,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과제물 해결에 있어서도 한 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해결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우리 아이들은 항상 문제해결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고, 학교는 물론 동네에서 초차 놀아줄 친구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가 커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 믿었고, 또 개인차가 있는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의 성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우리가 아이들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때는 올 초였다. 어느 학부모 처럼 우리도 큰 아이(현재 초등학교 5학년)의 어학문제로 고민하다 겨울 방학을 이용 모 대학의 영어캠프에 한 달간의 일정으로 보내게 되었다. 월요일 아침에

입교해서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다. 방학이면 늘 고민되는 것이 아이의 점심식사(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와 낮 시간을 책임져 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어 공부와 식사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이의 놀랄만한 영어 실력을 기대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아이의 짜증뿐이었다. 급기야 아이는 금요일에 집에 돌아오면 월요일 아침에 영어 캠프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전하는 말은 아이는 지금 함께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 아이와 같이 밥을 먹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돌아오는 유일한 반응은 ‘더티 보이’ 라는 놀림뿐이었다. 우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으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우리는 맞벌이를 포기했다. 맞벌이를 그만 두면서 생긴 문제는 역시 만만치 않은 사교육비 문제였다.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맞벌이가 필수지만 우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정서적 안정을 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아이들의 얼굴이 무척 밝아졌고, 그 동안 아이에게 무심하게 대하던 동네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 주기 시작했다. 더불어 아이 또한 부모들이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 동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다.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학교생활도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항상 선생님으로부터 수업태도 불량이라고 지적 받던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고, 더불어 학교 성적 또한 상위권을 맴돌게 되었다. 아이의 성적이 좋아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이 잦아지고 하니 그 동안 외면했던 친구들 또한 서로 생일에 초대하고자 했다. 아이 또한 생활에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았다.

맞벌이에 대한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육아 문제도 그렇고 교육문제도 그렇다. 반드시 맞벌이라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방영된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처럼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린이는 늘 친구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자기들의 리더로 삼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유아기나 청소년 시절의 심리적 안정은 한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는 것 같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육아와 교육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1회·송실대학교 홍보부)

(10면에서 계속) 마음은 더욱 현란하게 흩날리겠지만 수렴의 계절에서 해야 할 일은 원숙함으로 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좋아하는 기타선율에 맞춰 가을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자. 그래서 반짝이는 사물들을 통해 계시되는 하늘의 암호를 바로 읽으며, 열려진 공간에서 탄력성 있는 여유를 가지고 나날을 맞이하는 그런 생동하는 날들이 모든 분들에게...


모두들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내시길 바란다. 생명력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주변에 최고의 선물이다. 황금빛과 보랏빛의 샤워를 드린다. (53회·안양양명고등학교 교사)

◇역서 빛간을 축하합니다◇

미하엘 보르트 지음_한석환 옮김

철학자 플라톤

이학사 펴냄



우리가 서양정신사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만나는 서양 철학의 원류가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2500년 전에 다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학문을 하든 하지 않든 한번쯤은 플라톤을 읽고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쉽게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문 철학도를 제외하고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손에 속 들어오는 이 책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다. 40대 초반의 젊은 플라톤 학도가 최근에 '새롭게 써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우리를 곧장 플라톤에게로 안내한다.

이 책은 먼저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게 한 배경을 간략히 다루고, 그의 철학이 특정한 맥락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그 다음에는 플라톤의 초기, 중기, 후기 대화편들의 특징을 개괄하고, 이어 그가 왜 '대화편'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플라톤 철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주요 대화편들의 핵심 물음들과 함께 죽음, 육체와 영혼, 이데아론, 선형적인 삶과 상기, 삶의 개념 등 플라톤의 중요 사상들이 설명된다. 특히 그 유명한 태양의 비유, 선분의 비유, 동굴의 비유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지은이 보르트는 플라톤 철학을 관통하는 물음과 플라톤 이후의 철학자들을 사로잡았던 물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쉽게 논함으로써 우리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의 높고 가파른 고개를 한결 가뿐하게 넘어가게 해준다.(값 10,000원)

동문단상



이 주 형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20여일동안 한국에 다녀왔었습니다. 공항을 나서 자마자 질 반겨준 것은 다름 아닌, 습하고 더운 바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론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내 어머니품과 같은 포근함과 정겨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낮익은 산천. 반가움으로 들뜬 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 생활하면서 2년이란 세월이 길다고 느껴졌던 적은 거의 없었지만, 2년 만에 들어선 저희 집과 제가 쓰던 방들, 그리고 거리들은 낯설음과 더불어 그 크기의 작음에 제 자신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2년전 처음, 이곳(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받은 인상은 의외로 적막감이었습니다. 우선 길거리는 한적함 그 자체였고, 그렇게 울려대던 자동차 경적소리, 전화 벨소리와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는 저희 삶의 공간에선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처는 이런 적막감과 낯설음을 이겨보고자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좋은 시간들이 되었지만, 그 당시엔 두 문화 사이에서 겪는 가장 큰 이질감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 지금 이 학교에서 M.div.(Master of divinity) 4년 과정중 절반을 끝내고 5번째 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문분들 중에 목회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은 목회자수련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과정을 수료해야 목사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경우는 지금까지 그리 혼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처럼 M.div. 과정부터 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이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학 준비 기간부터 제 유학계획에 관해 절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에서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국에서 하려고 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은 거의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보면, 참으로 옳으신 충고들을 해 주셨

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삶들을 같이 경험해야 목회의 근본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한국현실에서 목회도 학연/지연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말씀들. 미국 장로교 신학교들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이르고 있다고 걱정해주셨던 목사님들.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전 그분들의 관심어린 충고를 잊어본 적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또 하나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이번 방문길에도 목회자의 길을 꿈꾸는 후배 몇명을 만나서 유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격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제 결정에 대해 확신에 찬 이유는 신앙고백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견해를 취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신학교육은 한국의 그것보다 더 충실하다고 믿습니다. 종교 학자들에 따르면, 고등 종교가 타락을 시작하는 징조는 다음의 3가지 목록의 수적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 기관, 지도자 수련 기관. 안타까운 것은 저희 한국기독교는 이 분석에 맞아 들어가고 있는 듯한 현실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신학교들은, 적어도 제가 속한 신학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as the prophetic voices in wildness” 입니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만 더불어, 신학자 Paul Tillich의 말처럼, 그 사회에서 제 3의 목소리(예언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신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혼돈된 목소리들 속에 생명의 소리,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속한 학교는 GTU란 신학교 9개학교가 모인 연합체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공유합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은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 9개 신학교에서 약 100여명의 교수님들 아래서 한 학기에 200여개의 강의 중에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미국 최대의 신학연합 교육기관입니다). 전 이 놀라운 지적, 영적 재산과 전통들 속에서 제 영적인, 신학적인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의 우려와 달리, 제 신앙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속에서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은 보수적으로 배우고, 신앙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한다는 어느 목사님의 충고에 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진보적인 분위기속에서 열린 이성을 가지고 배우다 보면,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고 오히려, 정체성

이 뚜렷해져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이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특히 한국 기독교안에서의, 우리 사회와 인류에게 얼마나 생명력을 잃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고인 우물 안에서 썩게 만드는지 깨닫게 됩니다.

목회에 관심이 많은 전, 지금은 고신측에 속해있는 장로교회에서 Youth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도, 여러 분야를 한번에 책임진다는 사실은 조금은 무모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형편 고려와 목사님의 권고로 2년을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온 이후에 청년부의 자리가 교회 내에서 많이 확대되고 인정 받고 있어 기쁩 따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은 목회는 '삶의 나눔, 그 자체' 입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이민자들이라도 교회외의 사회활동은 제한적이기에, 청년부는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목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현실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직신학과 종교심리학을 병행하는 신학을 하고 싶은 것이 제 큰 포부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조직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학과 현실사이에서 제가 느끼는 괴리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미래에 보다 더 실제적이고 심적으로도 수용하기 쉬운 신학을 교회와 사회에 제시해보고 싶은 것이 제 지금까지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테크놀로지가 더욱 발달할 지라도 인간 역사가 그러 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리 기대 가능한, 이성적인 사회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인간 내면과 감성에 대한 끝없는 추구는 결국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그 교회와 사회를 위해 전 준비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직 어리고, 어줍지 않은 견해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 글을 지금까지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유학생활동을 정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제게 제공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1살된, 자신이 걷는다는 사실이 신기하여 마냥 걸어 다니는 딸, 재운이와 쫓고 쫓기는 입장에서 있는 제 wife(사학과 92학번, 강병희)와 더불어 인사를 드립니다. 동문들 댁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화평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망 드립니다. 그리고, 승실 철학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교수님들과 모든 승실 철학인들에게 있으시길... (72회 ·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생동하는 날들



김 상 복

이제 입추를 지나 가을에 접어든 양 하늘은 파랗게 깊어만 가는데 연일 비는 왜 이리 대지를 적시려 하는지...아마도 우리네 세상이 그만큼 건조해진 때문인가? 그 풍요로운 우리의 어머니 지구 땅이 것처럼 메말라버렸다는...대지에 내리는 하늘의 메시지인지...점점 메말라가는 군상들의 가슴을 적시고 또한 무더움의 끈끈함을 통해 어울려 살아가는 인연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인가. 하늘은 정말 끈질기게도 물방울을 쏟아내며 소리없는 기업을 토하는데 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풍성한 세례일지 모르겠다. 비는 여전히 질퍽한 여성의 날처럼 잊혀진 감각과 기억을 일깨우는 예민함의 마술사가 되어 오늘 이 글을 쓰며 대학시절을 잠시 더듬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정말 아름다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축제와 술...수컷과 암컷의 화두...책을 통한 강제 사색...쥐빨도 없이 열변을 토하던 곳, 기숙사 언저리...학교 앞 술집들.. 졸업여행 등등...젊음이란 서툰 열정이 만들어낸 교정들의 기억이 스쳐간다. 그때 정말 은 우주를 삼킬 듯 날뛰며 에너지를 한껏 분출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음미하지 못하면서 제멋대로 즐겼다. 철없어 보이면서도 고집스럽고도 진솔하게 잘나가는 엉터리의 대행진을 즐겼던 것이다. 그래도 현학적 사변의 왕성한 움직임 속에서 포착하고자 했던 진리에의 회구가 이만큼의 풍성한 오늘을 예비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파토스적인 정열은 그저 주어지는 상황을 모두 경이롭게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이벤트로 만들어 버리는 마법의 힘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중년의 반복되는 가정과 직장의 일상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이벤트적인 체험...그것은 어쩔 밖에서 주어진다기보다는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내면의 불꽃놀이가 밖으로 투영된 것일 게다. 잘 살펴보면 지금도 이벤트와 마법은 계속되고 있다. 단지 우리의 눈에 힘이 빠져 있고 의무와 욕심으로 점철된 영양가 없는 관점들이 눈에 덧씌어져 있을 뿐...현재에 주어지는 순간순간이 모두 의식과

침예한 반응을 통해서 경이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 땐 새로운 창조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내 눈에 걸쳐져 있는 편견의 안경들...여러가지 이해관계를 위한 다양한 필터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최대의 장애였음 아는 데는 꽤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필터 밖으로 보이는 세상에다 외쳐대고 그것을 바꾸려하는 노력들도 아름답지만 자신의 필터를 닦는 노력과 아예 안경을 벗어던지는 일은 아주 장엄한 예술로 보아진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숨겨진 것들을 환히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인 것이다. 진리란 숨겨진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젠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으로 반복되는 듯한 일상에서도 무수한 이벤트를 발견하며, 스스로 이벤트 메이커가 되어가는 삶을 살기에 적합한 연륜이다. 여기엔 나이란 한갓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넘치는 열정은 그대로 되살아난다. 이제 불혹(不惑)을 넘어 지천명(知天命)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서 하늘의 뜻과 흔들림 없는 진정한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더없는 존경과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진정한 위대한 승자라고!

욕망의 잣대로 가득 찬 삶은 권태롭고 지루하기만 하다. 마음의 욕구가 펼쳐낸 조화들...사람과 물건을 가지려 하는데서 오는 슬픔과 좌절, 무기력감, 고통...이 것들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조금씩 걸러내는 일은 아름답고 냉철한 철학적 과정이기도 하다. 무수한 욕망과 사변 속에서 이전투구하던 수고를 이젠 마음을 털어내는 절제된 공간에서 행하다보니 더 격조가 있고 간결하여 더 확실하게 세상을 보고 지혜를 얻는 방법론이란 생각이 든다.

한때는 문리대 앞 잔디 앞 벤치에 앉아 밤에 환한 달덩어리 대신 홀로 켜진 갓등을 올려다보며 그 조그만 광휘에 넋을 잃고 펄펄 눈물을 쏟았던 적이 있었다. 웬지 모를 그 눈물의 시원은 바로 진리의 본향일거란 느낌만이 확연했다. 근원에 대한 목마른 향수와 그리움에서 나오는 서러움의 눈물, 험한 세상에 힘든 길을 가야하는 절실함의 분비물!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그때의 눈물은 내 삶에 크나큰 카타르시스가 되었다. 이젠 사물이 찬란하게 보이는 안경 없는 얼굴로 다시금 교정을 거닐고 싶고 뜻 맞는 벗들과 세상을 얘기하며 교류하고 싶다. 20여 년 전의 날뛰던 정열이 아닌 차분한 열정과 깨어있는 투명함으로 다시 거기로 소풍을 가고 싶다. 그 때의 낭만적 설움이 아닌 본질적인 희열에 북받쳐 이제 다시 한번 묘한 울음을 목 놓아 울고 싶다.

다시 가을남자를 예감한다. 지난해보다 더욱 열려진 감수성으로 찬연히 빛나는 가을의 풍광들을 어김없이 느끼게 되겠지. 이제 풍성한 가을녘에서 (5면에 계속)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신학의 시간문제



정 기 철

동문회로부터 최근에 받은 신학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대략적 소개를 부탁받았습니다. 철학과 동문회로부터의 연락인지라 철학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소개일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철학박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 철학과와 대학원을 87년에 마치고 88년 3월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 보훔대학에서 철학으로 학위를 맞췄습니다(93년 5월). 철학박사 학위 논문은 리콤폴트(Paul Ricoeur)의 해석학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리콤폴트를 통해 저는 해석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리콤폴트를 통해 해석학의 궁극적 관심사가 인간에 대한 이해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어떻게 인간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느냐?”는 저의 궁금사처럼 해석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는 그 가능성을 텍스트, 특히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열려질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징과 은유, 비유 그리고 이야기 등의 언어로 쓰여 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따라 저는 2002년에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라는 그 동안의 연구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난 후 신학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박사 지도교수의 거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콤폴트가 제창한 이야기 신학을 쓰려고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야기 신학이 아직 학문적으로 학위 논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도교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여 호신대에서 가르치던 중 97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도교수가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오신 링크(Christian Link) 교수와의 대화가 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행이 순탄치마는 않았습니. 지난 번 테마를 새로 오신 지도교수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해석학에 관한 논문으

로 학위를 받았고 자기는 신학적 해석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르트 전공자이고 지금도 바르트 학회를 이끌고 있어서인지 바르트에 대해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바르트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저가 아니라도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학문을 배워서 소개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런 논의 과정 중에 결국 종말론에 대해 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신학 중에도 큰 범주로 말하자면 조직신학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학풍은 한국과 많이 달라서 제가 공부한 보훔 대학 특성을 따르면 조직신학에는 교리학, 기독교철학, 윤리학 등이 구분 없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직신학 안에 기독교 철학을 했고 저의 신학박사 학위 논문의 절반은 윤리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윤리학에 속합니다. 그런 저의 생각은 [종말론과 윤리]로 2000년에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신학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논문들을 한글로 써 한국의 신학계에서 먼저 검증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한 편 쓸 때마다 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학회 때 발표 등의 경로를 거쳐 많은 비판과 건설적인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 된 책이 바로 2000년에 출간된 [시간문제와 종말론]입니다. 2001년 해외연구교수 파견자로 선정되어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써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문제와 종말론]이 근간이 되었지만 지도교수의 비판과 제안으로 큰 틀을 제외하고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보훔대학에서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신학의 시간문제]로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신학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요약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신학박사 학위 논문의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대한 접근이 전통적인 종말론의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저의 문제제기의 핵심은 바르트가 심혈을 쏟았던 문제와 같습니다. 즉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중요한 신학자들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 개념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 보려고 했습니다.

논문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간 개념은 영원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

나 저는 시간 개념이 반드시 영원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리 시간 개념 자체에 대한 의미부여 가능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영원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한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시간의 의미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간 개념을 통해 종말론에 접근하려는 저의 시도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종말론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시간 개념을 통한 종말론에 대한 이해의 정당성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개념 하면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시간 양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양식 중 종말론은 통상 미래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과거는 창조론과 현재는 그리스도론과 연관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몰트만도 그렇지만 링크는 종말론이 창조론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시간의 전체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리콤폴트를 따라 인간에 대한 이해는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과 거기에서만 인간 이해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간도 어디에만 초점을 둘 수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학이 창조론과 그리스도론 그리고 종말론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종합해 나가야 하는지 논증해 나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 여러 신학자들(아우구스티누스, 바르트, 볼트만, 몰트만, 판넨베르크)의 시간 이해와 시간 개념을 통한 종말론의 정리를 순서대로 다루었습니다. 그런 다음 2장에서 여러 철학자들(하이데거, 레비나스, 리콤폴트, 화이트헤드)은 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개념을 통한 종말론 접근 가능성과 정당성을 성경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의 창조론과 현재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미래의 종말론을 차례대로 그러나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야 정리된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의미성과 중요성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시고 종말에 만유의 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작업은 한국에서 종말론을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입니다. (58회 ·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

◇소설 출간을 축하합니다◇

김인석 저

에이즈성자 / (행복되찾기)

꽃이 되는 기쁨보다 길이 되어 숨지다 / (행복되찾기)

김인석의 소설 『꽃이 되는 슬픔보다 길이 되어 숨지다』와 『에이즈성자』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시대의 사유하는 이들의 이상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그의 책 인사말에서 자신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삶의 진솔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그의 꿈은 잠시나마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다시금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꿈을 지니고 있는 작자는 이 소설을 통해 다시 한번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있다.

어릴 적에 꾸는 꿈이 있습니다. 어른 없는 세상에서 동굴 속에서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끼리 사슴을 잡고 토끼를 잡으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꿈입니다. 이 꿈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10세 때 동네의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 둘과 함께 미지의 세상- 도봉산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공사 터에서 수북이 쌓여진 모래더미에 누워서 세 아이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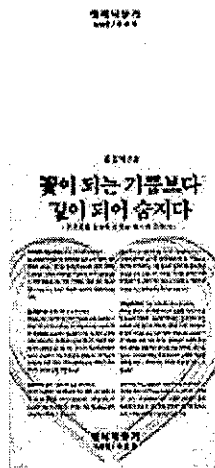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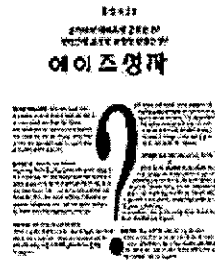
"여기엔 밀림이 없는 거 아냐?"... "그러면 우린 무얼 먹고살지?" "소풍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병 같은 거 주워서 팔면 돈 벌 수 있어. 빵 살수 있어. 난 우리 동네에서 해 본적이 있어."

동무의 말은 현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병 팔아서 살자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니라고, 소풍 온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은 다시금 어른들과 사는 것과 같다고, 다시금 좌절감과 같은 그 무엇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꾸니다. 그때의 자유의 꿈을, 첫 쌍둥이 형제 <꽃이 되는 기쁨보다 길이 되어 숨지다>와 <에이즈 성자>는 위트, 고뇌, 배려, 관대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물의 소유의 욕망과 무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으로 자유롭게 향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들이 같이 자유롭기를 꿈을 꾸니다.

-작가의 인사 중에서-

김인석은 자신의 두 소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 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 실로암 안과 병원 김선대 목사님(62회 졸업)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리: 문영식(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과정)

이지연(학부 3학년)

인터뷰를 위해서는 10시까지 실로암 안과 병원에 도착해야 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30분이나 지각을 하는 바람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목사님의 원목실로 들어섰다. 목사님께서서는 힘이 넘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글을 쓰는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소리’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쏟아지던 소나기만큼이나 거침이 없고 명확했다. 자신의 삶에 뚜렷한 확신을 갖는 분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빛을 잃다.

실로암 안과 병원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무료 안과 진료와 개안 수술을 위해 86년 목사님이 설립하신 병원이다. 목사님께서서는 열 살 되시던 해 6.25전쟁 때 불발탄으로

인해 시각을 잃으셨다. 게다가 부모님마저 돌아가셨다. 삶에 있어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 부모와 시력을 순식간에 잃었다는 것은 목사님을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으리라.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 이루어야 할 수 있을까.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머금은 그 모습 속에서 순탄치 못했던 삶의 역정을 읽을 수 있는 듯 했다. 세상의 모든 풍파 앞에 홀로 던져진 희미한 생명이 큰일을 이루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자라는 평소 생활 신조가 장애와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 지금의 목사님을 있게 했으리라 생각해본

다.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일어서신 후 자신처럼 앞
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개안의 빛을 주고자 하시
는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
다.



김 선 태

서른 세 번 도전 끝에 이룬 신화
-목사님께서 성장하셨던 전쟁 직후
는 모두가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이제 살만하다는 요즘에도 우리 나
라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학교에 다니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오시기까
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많이 어려웠지...자서전에도 썼지
만(목사님께서서는 99년 <서른 세 번
도전 끝에 이룬 신화>라는 자서전
을 내셨다.) 어렸을 때는 거지 생활
도 해봤고, 그 때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평생을 봉
사하겠다고 다짐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에는 현행법상 시
각 장애인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
었지.

시각 장애인은 대학에 갈 수 없
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었다는 사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갖고 싶지 않은

이름인 장애인이라는 이
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한
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텐데 희망을 찾아 나선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교부 대학교육국장을 찾아갔지.
처음 가서 헛수고하고, 또 가고 또
갔지. 서른 세 번 찾아가서 결국
응시 자격을 얻어냈어.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 절망이
나 좌절이 아닌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기 위한 에너지로 승화 되었기
에 이루어낸 삶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철학하기

-어렵게 입학한 대학이기에 학창시
절의 공부 또한 치열하게 했을 것
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대로 된
번역본 하나 없었을 그 시절 철학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당시에는 다들 원서를 가지고 공
부했지. 밤늦게 까지 외국어 공부
도 많이 하고, 특히 독어 공부를
많이 했지. 셸링, 피히테 등을 원서

로 읽기도 했지. 조요한 선생님과 까다롭게 공부했어. 눈이 불편하니까 한글타자기로 리포트 쓰고 친구들이 책도 읽어줬지. 기억에 남는 친구가 둘 있는데 지금은 둘 다 고인이 됐지만... 남태일이라는 친구가 많이 도와줬고, 황화자님이 많이 도와주셨지...그 두 명이 기억에 많이 남네...

많은 정보과 자료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오늘의 현실과는 사뭇 다르지만, 철학에 대한 애정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철학에 대한 애정은 급기야 모교에서 2000년 10월 명예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기에 이르렀다.

베풀며 사는 삶

사람에 따라 어려운 환경이 장애가 될 때도 있지만 그 장애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당시에 목사님에게는 하루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환경이란 그다지 중요치 않아. 환경에 굴복해서는 안되지. 내가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액체인데...사람은 이 세 가지 액체를 바쳐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땀, 눈물, 피. 이걸 바쳐야 해. 목표를 향해서 어렵더라도 해 봐야지. 신

앙을 바탕으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말이지...

인터뷰 중에도 목사님을 찾는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터라 바쁘신 듯 했다.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실로암 병원 외에도 중국 연변의 실로암 안과 센터, 46인승 리무진 버스에 병원을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는 '움직이는 실로암 안과 병원'에서도 일하신다. 철학을 공부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은 목회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하신다. 사랑은 인식이 하나라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피곤함을 뒤로 한 채 오늘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하루 일과가 상당히 바쁘지. 그래도 베풀면서 살아야지...

얼마 전 봉천동에 불일이 있어 지하철 출구를 막 나오는데 새로 지은 말끔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실로암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커다랗게 밝히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러 편리한 배려가 되어있는 건물이었다. 대화 중에 그 복지관이 목사님께서 설립

하신 곳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요즘에는 개안 수술 후 시각 장애인들의 재활 교육 훈련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다.

-병원 세운 이념은 제일 큰 것이 선교 활동이야. 눈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무료진료, 무료 시술해서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지. 일년에 1500명 정도 진료하고 무료 진료는 2~3만 명 정도 진료하지.

그 큰 일들을 하시자면 자금도 막대하게 들터였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도와주시고 대기업에서도 지원이 있지. 작은 도움들이 큰 힘이 돼. 일일 찻집, 바자회로 조금씩 모으고, 어머니 유산이라면서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권사님은 참기름 판 돈으로 일년에 10명씩이나 개안 수술을 해드리기도 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풍요하고 넉넉할 때라야 가능할 것만 같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의 일화는 정작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의 모든 따뜻함은 그 '에너지'를 보

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치며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학교의 상황에 관해 이것저것 물으시던 목사님께서서는 제 작년 학교에서 일어난 소요에 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셨다. 학교를 오래 떠나 있으면서도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 특히 철학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로 이어졌다. 실력을 키워야 학과가 바로 설 수 있고 학교가 빛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충고가 철학을 하는 모두에게 메아리쳐질 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도 늘 힘 없는 이들에게 든든한 빛이 되어주시는 목사님이 되길 바라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 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예금주) 송철동문

우리은행

461-146308-02-001

동 문 회

1. 동문 소식

▶**구태환** 동문(64회·승실대 철학과 박사 수료) 1년간 중국 심양의 청구문 화연구소에 머무르면서 한문 원전을 Data Base화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8 월 10일 중국으로 향했다.

▶**윤철현** 동문(73회)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마케팅전공)에 9월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일환·박채훈** 동문(70회·69회) 7 월 15일 득녀(이서윤)했다.

▶**이성준** 동문(72회) 성균관대학교 교 육대학원 윤리전공으로 9월에 입학하 게 되었다.

김선태 동문(38회), 성금 기부

김선태 동문(38회·실로암안과병 원 원목실장)께서 저희 동문회에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 학 과

1. 교수 동정

▶**김선욱** 교수(55회) 6월 14일 연세대 위당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한국철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세계 화 시대의 국가 이념에 대한 철학적 반 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II. 학과 동정

▶ **철학과 2003학년도 제2학기**로 학사 편입학 1명, 일반 편입학 6명이 입학하 게 되었다. 학사 편입학은 김은우씨, 일 반편 입학은 박은영, 백소윤, 오승현, 이 가영, 이충근, 한종환씨가 입학하게 되 었다.

▶ **대학원**에서는 8 월22 대학원 학위 수 여식이 있었다. **김시천** 씨(66회)는 「漢 魏(노자) 이해 변화 연구」로, **이지성** 씨 (대학원)는 「S. Hau- erwas '내러티브 윤리'의 덕 윤리 보완 가능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박채훈** 씨(69회) 는 「공자의 和사상」으로, **김윤희** 씨(대 학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동의 철 학」으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다.

▶철학과 대학원으로 2003년도 제2학기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2명이 입학하게 되었다. 박사 과정에 정광제(현상학 전공), 이민정(미학전공) 그리고 석사 과정은 전묘숙(동양철학 전공), 조성민(윤리학 전공)씨가 합격했다.

주소 업데이트

▶정주기 동문(57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550 은행 주공 아파트 121동 601호

▶이장형 동문(대학원 · 천안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천안시 두정동 대우 그린 아파트 107동 306호

▶강원식 동문(75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동 성원 아파트 106동 1004호 T: 031-276-5673

▶김상복 동문(57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 양명 고등학교 교육정보실 T: 016-9331-9591

▶우문선 동문(36회 · 연희교회목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14번지
T: 02-352-4571

▶배기선 동문(75회 · 선거관리 위원회)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628 2층 2호
T: 016-9449-1586

알림

1.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간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1호 (2003 가을)
2003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식 환
간 사: 문 영 식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su.ac.kr